

통권 제 176호

2562
2018

06

마중물
스승의 화살



마음의 등불
자기 단속



씻어낸 알
마음의 저울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

인간은 불신을 받을 때처럼
무가치하고 불유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불신은 자기가 초래한 것이지
상대방의 탓도 아니다.
신임을 받는 것도 자신에게 있다.
정직과 성실은 불신을 몰아내고
인간의 신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신임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가지^加가 있는 것이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차향기 _ 54

다례茶禮

_ 김정애



독자기고 _ 66

딸은 참 좋다

_ 강금순



결망에 담긴 이야기 _ 72

원하는 것만큼

고통도 따른다

_ 법일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0 십선성취

34 마음의 등불

37 산책

38 애견 칼럼

42 울림

44 씨앗한알

46 새이야기

50 법향기 속으로

54 차향기

58 설화 속으로

62 영화이야기

66 독자기고

70 SNS 세상 돌아보기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고성제3 _ 화령

스승의 화살 _ 오쇼 라즈니쉬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지 말라 _ 법경

아 다르고 어 다른... _ 이옥경

회향 서원 _ 강동현

그림 읽어 주는 여자 _ 덕현

자기 단속 _ 하수일

그런 날 _ 김대곤

반려견의 산책 _ 권도형

청정한 연꽃 _ 쟁이앤

마음의 저울 _ 석준호

파랑새Eurystomus orientalis는 있다 _ 정목식

효친 _ 법수연

다례茶禮 _ 김정애

제비원 돌부처 _ 보현

침밀밀秘密 _ 자인행

딸은 참 좋다 _ 강금순

리스트와 쇼팽의 아름다운 우정

원하는 것만큼 고통도 따른다 _ 법일

공명지조共命之鳥 _ 김재동

다반사茶飯事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인간의 생명은 숨쉬는 사이에 있느니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다.

“인간의 목숨이란 언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하루하루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고 하셨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에게 물으셨다.

“인간의 목숨이란 언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밥 먹는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며 다시 다른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 제자는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바로 그 순간순간, 즉 호흡지간에 있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 부처님은 크게 칭찬하시며 그를 향해 “참으로 도를 아는 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사람의 목숨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목에 숨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인양 치장하고 입히고 좋은 것만 먹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다음에’ 잘하면 되고 ‘다음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기회는 좀처럼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문명의 이기(利器)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씻고 닦고 광을 내서 모셔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차라는 것은 사람이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은 업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생기고 건강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업의 덩어리인 몸은 ‘업을 소멸시켜 불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불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몸을 자꾸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에 숨이 없으면 그만인 몸, 그리 아끼고 광만 내려 합니까?

- 이정우 『길을 묻는 그대에게』



업의 종류

우리가 괴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은 탐진치의 삼독에 의하여 나쁜 업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면 행위와 그 행위가 가지는 잠재된 힘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순간에 행위는 종료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 이외에도 그 행위에 따른 여력이 마음에 남아 미래의 고탁을 가져옵니다. 불교에서는 행위 그 자체를 표업(表業)이라고 하며, 행위로 인하여 마음에 남게 되는 잠재된 힘을 무표업(無表業)이라고 합니다. 업을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와 그에 따른 잠재된 힘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다투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와 마주칠 기회가 오면 그러한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데, 행위 뒤에 남게 되는 이러한 감정을 무표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표업보다도 미래에 결과를 가져올 잠재된 힘으로서의 무표업을 더 중시합니다. 말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작용은 선악의 어느 방향으로든지 미래에 결과를 낳을 잠재된 힘인 무표업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후천적 성격이 결정될 뿐 아니라 미래의 고탁의 결과도 달리 나타납니다.

무표업에는 선의 무표업과 악의 무표업이 있습니다. 선의 무표업은 악의 무표업을 억제하고 악의 무표업은 선의 무표업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의 잠재된 업의 힘을 선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미래의 고통을 제거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표업이든 무표업이든 선업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업은 미래에 나쁜 결과, 즉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의 힘을 특히 업력이라고 합니다. 혹→업→고의 관계에서 보듯이 고통을 초래하는 업은 번뇌에 의한 나쁜 업이며, 특히 무표업이 이러한 업력의 주동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번뇌에 의하여 초래되는 업은 우리의 몸과 입과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신·구·의·의 삼업^{三業}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는 온갖 신체적 행위와 언어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나 의지 작용이 신체와 언어에 의하여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신·구·의의 삼업 가운데에서 마음의 작용을 사업^{思業}이라 하며, 이 사업이 신체나 언어로 나타내어 질 때 이를 사이업^{思已業}이라 합니다. 즉, 우리의 업은 마음의 작용인 사업과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사이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실제적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도 업으로 간주하여 고통을 초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특히 삼업 가운데에서 의업^{意業}, 즉, 사업^{思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불교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도 거기에 이르는 동기나 과정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위선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그것에 의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업에는 선악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업을 지으면 미래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악업을 지으면 미래에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인낙과, 악인고과^{善人樂果, 惡人苦果}’라고 합니다. 보통 ‘선인선과, 악인악과^{善人善果, 惡人惡果}’라고도 하지만 교리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선인낙과, 악인고과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으며 무기^{無記}이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즉, 선업만은 행위주체가 아닌 자에게 그 결과를 돌릴 수 있으며, 또한 선인에 인한 낙과를 낙과만이 아닌 깨달음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하여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향^{廻向}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업에 의한 자기의 낙과를 다른 중생을 위하여 회향하는 것을 중생회향^{衆生廻向}이라고 하며, 또 이를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돌리는 것을 보리회향^{菩提廻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인낙과가 원칙이며, 낙과는 인간계나 천계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나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낙과를 고로부터의 영원한 해탈이라 할 수 있는 열반으로 돌리는 것을 실제회향^{實際廻向}이라고 하며, 중생회향, 보리회향과 함께 삼중회향^{三乘廻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향의 사상에 의하여 불교는 선업에 대한 당위성을 지니며 한없는 자비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집성제에서는 고를 초래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것이 탐진치의 삼독에 의한 것이며 이 삼독의 행위는 악업이 되어 미래에 고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집성제를 통하여 모든 괴로움은 오직 스스로가 만들 뿐이

며 신이나 어떤 외부의 것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성제의 숭고한 이치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행복을 구하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화를 자초하는 예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행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펴 탐진치를 제거하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



스승의 화살

오쇼 라즈니쉬

1931년 ~ 1990년

인도 철학자

작가

전 대학교수



독일인 대학 교수 헤리켈이 어느 선생에게서 궁술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백발백중의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자 헤리켈이 선생인 스승에게 말했다.

“이제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아직도 더 배울 것이 있습니까?

이젠 돌아가도 되겠지요”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그대는 내 기술의 ABC도 배우지 못했다.”

헤리켈이 놀라 물었다.

“ABC라니요? 이제 제 기술은 백퍼센트 완벽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난 지금 명중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과녁을 맞히는 것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제 진짜 궁술을 배우도록 하라.”

헤리켈은 스승과 함께 시도해 보았지만 도대체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스승에게 말했다.

“언제나 성공할 수 있겠는지요. 전 스승님이 ‘무’라고 일컫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화살을 쏘지 않는데 어떻게 화살이 스스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러면 그대는 돌아가도 좋다.”

“제게 인정서를 주시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대는 아무 것도 배운 게 없다. 그대가 배운 것이란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헤리켈은 비행기 편을 예약해 놓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하여튼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헤리젤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스승에게로 갔다. 스승은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헤리젤은 스승이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아무런 초조함도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한 순간 그는 참으로 보았다. 그는 스승이 전혀 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스승은 활을 손에 잡고 서서히 끌어 당겼으나 아, 화살은 스스로 쏘아지는 것이 아닌가. 헤리젤은 바로 이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통찰력이었다. 헤리젤은 자기가 왜 실패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3년 동안 그는 스승이 활 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었다.

그러자 스승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되었다. 그대는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돌아가도 좋다. 그대는 이제 비로소 알았고 경험했다.”

궁수가 활을 들고 과녁을 겨눌 때 세 가지가 있다. 궁수는 근본이고 기본이며 근거이고 중심이다. 다음에 궁수로부터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있다. 그리고 다음엔 멀리 떨어져 있는 과녁이다. 그 과녁을 명중시켰을 때 그대는 먼 것을 만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천은? 그대는 과녁을 명중시키면서 기계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원천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는지 그대는 아는가? 화살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누가 화살을 움직이는

가? 그대는 모를 것이다. 그대는 궁수를 모른다. 그대의 숨씨가 백발백중이라면 그것은 과녁에 관한 것이다. 그대 자신은 어떤가? 궁수는 대체 무엇인가? 궁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화살이 과녁을 향할 때, 밖으로 날아가려 할 때, 곧바로 되돌려 안으로 향하게 하라. ↓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37

사타법捨墮法 제4조 사비친니완고의학처使非親尼浣故衣學處

불교에서 출가 수행자는 반드시 자신의 옷을 자신이 빨도록 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세탁을 맡겨서도 안되고 옷을 빨게 해서도 안된다. 출가수행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것이 수행의 일부이다.

그런데 세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자기 혈족의 출가수행자에게는 옷을 빨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은 안되고 자기 혈족의 친척인 경우에는 세탁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계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바라이죄와 승잔죄와 관련이 있다. 음행_{淫行}과 부정_{不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을 하여 음행하는 것은 바라이죄에 해당하고, 서로 몸을 비벼 사정_{射精}을 하게 되면 승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비구와 비구니가 음행을 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교단이 발각 뒤집혀진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취해진 조치가 바로 '비구는 자기 친족의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할 수 있다'는 계의 제정이었다. 이를 사비친니완고의학처_{使非親尼浣故衣學處}라 한다. 환언하면, '자기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지 말라'는 계이다. 여기서 계_戒라 하지 않고 학처_{學處}라고 하고 있다. 학처는 계율 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출가수행자가 배우고 닦아야 할 내용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학처라 불리고 있다. 학처를 범하여도 추방이나 격리되는 중죄_{重罪}는 아니다. 참회를 하여



바르게 고쳐나가면 바로 없어지는 죄이다.

어쨌거나 승가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져서 이를 금하도록 한 것이 비구니에게 세탁을 맡기지 말라고 한 것이며, 여기에 위촉된 승가의 사기를 고려하여 다시 ‘자기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세탁을 맡기지 말라’고 한 것이다. 즉 다른 비구니에게 세탁을 맡겨서는 안되고 자기 친척 비구니에게는 옷을 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정한 계행과 위의(威儀)를 중요시 여기는 승가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 규제라고 보여진다. 사실 남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의 허물을 보거나 단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가의 구성원들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갑질과 수순은 지혜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분별지(分別智)라 한다. 그러나 남을 시켜 자기 일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는 말자.

그런데 이 계율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다. 비구가 자기 친족의 비구니에게는 세탁을 맡길 수 있으나 비구에게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구니가 비구에게도 시킬 수 없다. 오로지 남자 출가자가 여자 출가자에게만 옷을 빨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엄연히 남녀의 성차별이자 비민주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불교의 평등사상에도 어긋난다.

사타법捨墮法 제4조의 조문條文과 인연담因緣談

사타법 제4조의 인연담을『사분율』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내용이 너무 난잡하여 이를 순화시켜서 요약하여 실는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카알루다아인 비구와 투라난다 비구니는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 하루는 카알루다아인 비구가 식사 때가 되어 투라난다 비구니가 있는 곳에 갔다. 그런데 둘은 염모하여 서로 몸을 비비고 급기야는 옷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투라난다 비구니가 말했다.

“그대여, 그 옷을 이리 내시오. 내가 깨끗하게 빨아드리리다.”

그리하여 카알루다아인 비구가 옷을 벗어 주었는데, 투라난다 비구니가 그 옷을 빨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비구니는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여러 동료 비구니들이 책망하였다.

“비구니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부정(不淨)한 짓을 하여 아이를 배었구나.”

이 소문이 부처님께 알려졌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대중을 불러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도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면 이는 사타죄가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비구들이 위촉되어 평상시 친척 비구니들에게 옷을 빨게 했던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 친척



비구니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는 것은 허락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계율을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는 것은 사타죄가 된다.”

사비친니완고의학처使非親尼浣故衣學處의 가르침

첫 번째는 사음이나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로 염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로 인하여 몸으로 부정한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불교의 출가수행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청정한 승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신도가 줄어든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한 승가는 신자가 떠나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다. 부탁과 협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와 갑질은 다르다. 불합리한 지시와 일방적인 명령은 바람직하지 않다. 화합 승가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다음 호에서는 '분수에 넘치게 옷을 갖지 말라'는 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다툼을 피하는 좋은 방법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서로 편해지고 자존심만 커지게 된다고 하죠.

이럴 때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해요.

- 해민스님 -

아 다르고 어 다른...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주는 것 없이 알뜰다거나 볼수록 밋상이라는 말을 듣는 딱한 사람이 있다. 날 받아 놓으니 더더욱 일각이 여삼추라며 동료들이 머리를 내젓는 이 사람은 6월 말이 정년이다. 본인이야 틈만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30여 년 공직생활을 끝내게 된 시원섭섭한 심정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의 이야기에 진솔하게 귀 기울이기는커녕 드러내 놓고 귀찮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민망하고 안됐다.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는 확실히 좋은 사람에 속한다. 땀 흘린 데 없이 활달한 성격에 인정도 많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그만한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눈총을 받는 건 때와 장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말솜씨 때문이다. 좋은 말도 그의 입을 통하면 비아냥이나 헐뜯는 소리처럼 들리니 재주 치고는 참 밋살맞은 재주다.

요즘 살이 좀 찼 것 같네? 오늘 참 예뻐(멋져) 보이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며? 일솜씨 하나는 최고야... 등등, 동료라면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일상적인 말을 그는 좀 다르게 한다. 스모선수가 왔다가 울고 가겠어. 화장발에 옷발에, 호박에 줄그으니 좀 낫네! 유난떨지 마, 직장생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식당 개도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지... 등등, 하는 사람만 즐겁고 듣는 사람은 슬며시 불쾌해지는 농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오는 동안 한 번이 두 번 되고, 열 번 스무 번이 수백 번이 되면서 동료들의 마음에 웅이가 생기고, 단단함이 더해진 모양이다.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먹어서도 아닌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내뱉다 보니 말이 칼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할퀴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박수 받으며 떠나도 서운할 마당에 등까지 떠밀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이 사람 정도는 애교로 봐 줄만하다. 선전포고도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차별 용단폭격을 퍼붓는 용사^{용사}도 있다. 용맹^{용맹}한 사람이 아닌 용렬^{용렬}한 사람, 그것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이고, 감정적이고, 무례하고, 무지막지한 언어폭력을 당해본 이들이라면 분노보다 더 강렬하게 끓어오르던 그 순간의 치욕스러움과 배신감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이다.

비슷한 일로 나는 지금 가슴앓이 중이다. 여러 친구들 중 유독 내게만 함부로, 너무도 자주 되풀이하는 친구 A의 안하무인 격 언사도 정나미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행(!)을 꾸역꾸역 참아내고 있는 나 자신이 위선자처럼 여겨져서다.

지은 죄도 없이, 오히려 매사 이해하고 양보해 준 탓에 푸대접을 받다니.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A는 자신의 불찰로 인해 빚어진 작은 소란을 나에게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며 신경질을 내는 것으로 풀었다. 여럿 가운데 번번이 내가 화살받이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나마 내가 가장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나와 달리 다른 친구들은 일찌감치 적당한 거리 너머로 물러서서 경계선을 단단히 그어둔 터라 집중포화를 당하지도 않고 당연히 상처도 받지 않는다.

한바탕 성질 자랑을 한 다음 순서는 이러저러 하다 보니..., 내 성질

이 급해서..., 믿거라 하고.... 그러니 너는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자기변명이다. 왜 나만? 친구라서? 가까워서? 믿는 사이라? 언제까지? 뭐를 위해서? 극에 달한 인내심이 모멸감과 뒤섞여 폭발 일보직전인데, 나의 침묵이 마땅치 않았던지 A가 기어코 한 마디를 덧붙인다. 그깟 걸 가지고, 하여튼 너도 참 뒤끝 한 번 질기다....

미안하다고 했어도 아팠을 텐데, 빈정거리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 쏘인다. 수없이 유보해 왔던 이별 예감에 떨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고 나 자신을 다독여 보기도 하지만.... 다음 일은 나도 자신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또 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는 내가 만드는 월간지의 킬러다. 몇 달에 한 번씩이기는 하지만 오·탈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게 실수든 잘못이든 가리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로 트집을 잡고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고마운 일을 트집이니 물귀신이니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겠으나, 변명 같겠지만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다. 전지전능한 권한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지몽매한 아랫것을 잡도리해도 그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거나 편집자들을 넌지시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깎아내리고 깔아뭉개기 위해 절제도 없고 한계도 없는 맹비난을 퍼붓는다. 가학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그렇게 함부로 쏟아놓을 수는 없다.

배려나 이해심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 책은 물론 어떤 인쇄물이든 오류가 있다는 것은 나처럼 그 책이나 인쇄물을 만든 사람의 실수요, 책임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입이 광주리만 해도 말을 못하겠지만 편집이나 인쇄 팀에서 학을 뗄 정도로 매번, 최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자부할 수 있다. 완벽에 가깝기로 정평이 난 우리 책에서 몇 달에 한 번, 어쩌다 한두 개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하면 먹이를 어르는 잔인한 맹수가 되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일을 제대로 해라, 먹고 하는 일이 뭐냐, 혈세 낭비가 어찌고, 자질 부족이 저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홀로 완벽한 듯 힐난으로 가득 찬 그의 이메일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을 찾아내고 오·탈자를 고친다. 잘못된 띄어쓰기도 바로잡는다. 그에게 채찍을 가하는 기분을 담아 빨간 펜으로 사정없이 짹!

나는 이제 그의 관심이 전혀 고맙지 않다. 50여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의 눈에는 격려하고 응원할 만한 이야기가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쩌면 그리도 초지일관으로 인색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비난 일색인지. 내가 고개 숙여야 하는 건 자기만족을 위해 물고 뜯는 졸렬한 독자가 아니라 약이 되는 회초리를 칠 줄 아는 열렬한 독자다.

부처께서는 법구경에서 도^道에 이르려면 탐^貪, 진^瞋, 치^痴 삼독^{三毒}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네 갑남을녀들의 삶에 비추어 보자면 욕망과 성냄, 어리석음, 거짓을 버려야만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어찌랴.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착한 일로 악을,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는 말씀을 한 귀로 흘리면서, 내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 ‘마음을 다스려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또 다른 말씀을 외치고만 싶으니 도긴개긴, 내 입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방정이다. ♣





나는 기부를 좀 한다.

내 입으로 기부를 좀 한다고 하기는 부끄럽지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기부하기도 하고, 6월에는 특히 많은 것을 기부한다. 기부 받는 사람들은 내가 기부를 한지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하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부를 알리지 않는다는데, 깃털 같은 마음을 가진 나는 온 동네방네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하자고 권하기도 한다.

6월에는 특별히 많은 것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돈을 기부할 때도 있고, 먹을 것을 기부할 때도 있다. 설거지 봉사를 하며 연을 맺은 곳도 눈 여겨 보고 청소 봉사를 하는 곳도 눈 여겨 본다. 주로 일 년 내내 주위도 좀 살피고 여기 저기 기웃대기도 해서 기부할 곳을 찾는다.

5월에는 딸의 생일이 있고, 7월에는 남편의 생일이 있어서 생일 선물을 안 하고 생일 파티를 하지 않고 그 중간 달인 6월에 그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딸이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라는 말을 듣고 다음 해부터 무료 급식소에 음식을 기부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아직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해 전에 무료급식소 사람들에게 물었던 말이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한 우리한테 어떤 분이 했던 말과 같다. 우리 집이 어쩌나 가난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끼 밥 먹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사는 시절이었나 보다. 먹을 밥이 없어서 절에서 보내 주신 쌀로 밥을 해 먹었고, 보살님이 보내주신 옷으로 겨울을 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친구 오빠가 입던 옷을 내가 입고 다닌 적도 있다. 한참 지난 뒤에 친구 오빠 옷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자기 오빠 옷을 내가 입고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다. 사춘기인 내가 부끄러워 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해준 친구가 고마웠고 그 고마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아직도 잘 만나고 있다.

도움을 받으면서 부끄럽기도 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다. 엄마가 얻어온 낡은 신발을 잘 신고 다녔고, 학사회 선배들이 물려준 참고서도 잘 썼다. 학교 선생님한테는 용돈도 받아썼다. 또, 힘내라고 다독여주던 스승님들이 계셔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단속했고, 어쩌다가 무너져도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 때문이었다. 생각하면 물질이든 마음이든 받지 않은 것이 없다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리석었던 나는 부자가 되고 나서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내내 받기만 했는데 돌려 줄 일이 있으니 어쩌나 신이 나던지, 나눠주는 그 마음이 엄청 부러웠는데 그 부러운 일을 내가 하니 스스로가 대견해서 자랑하고 다닌 것 같다.

어떨 때는 내가 기부를 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한참을 웃고 나서 그렇다고 대답할 때도 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을 돌려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을 더 많이 닮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지금은 물질을 회향하는 것부터 하고 있다. 지금도 그분들을 보면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회향하고 계신다.

그분들의 흉내라도 내다보면 나중에는 더 큰 깨달음에 가 닿지 않을까하는 큰 생각도 있다.

“원하건데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내 엄마가, 보살님들이, 서원당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무엇으로든지 자신의 기도를 회향하는 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이만큼 와 있다. 또한 내가 지은 작은 것들도 회향되기를 바란다. 서원한다. ♫



그림 읽어
주는 여자덕현
법천사 전수

『그림 읽어 주는 여자』이 책은 한줌마 씨가 그림을 한 점씩 소개하면서 설명과 함께 작가의 느낀 점, 일상생활 등을 수필형식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현대미술에서부터 고대미술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림을 소개하며 깊은 감상에 이르게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그림 감상법을 ‘그림을 보고 상상하기’라고 말합니다. 느긋하게 마음을 열어 그림과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작가는 독자가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이미 꿰뚫고 있는 듯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며, 작가의 경험담까지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덧 그림 속으로 빠져들고 그림과 금방 친해집니다. 또한 작가는 그림의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누드화, 춘화 등 누구에게도 물어보기 힘든 세속적인 궁금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이 책을 처음 구입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책 속의 그림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림에 문외한인 내가 과연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지...

이런 저런 걱정과 생각들로 선뜻 책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나서 얻은 결론은 ‘내 생각, 내 느낌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이 책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글은 읽지 않아도 그림은 봅니다. 그림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은 즐겁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여기에서 작가의 말대로 저 역시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기’를 해봅니다. 특히 에드가 드가와 박항를 작가의 그림을 자주 펼쳐 봅니다.

에드가 드가의 작품 중에는 발레를 하는 그림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발레수업’과 ‘리허설’이라는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가의 생애를 읽어보면, 드가는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드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어머니로 인하여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불행과 힘든 고통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가의 작품은 불행했던 자신의 삶과 달리 작품 속은 따뜻함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박항률 화가의 작품은 마음을 잔잔하게 하며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그림 속에 빠져들고, 그림은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은 그림과 하나가 됩니다.

박항률의 그림에는 어린 소녀가 자주 등장 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머리를 한 가닥으로 곱게 빗어 묶은 소녀는 정면이 아닌 옆모습으로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꽃, 나무들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가 어린 소녀를 옆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옆모습이 배경을 비롯한 새, 꽃, 나무들과 함께 그림 전체를 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

라고 합니다.

또한 박항률 작가는 색동저고리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속 앳된 소녀는 사춘누이의 모습이고 성숙한 여인은 어릴 적 그림을 자주 그려주곤 했던 어머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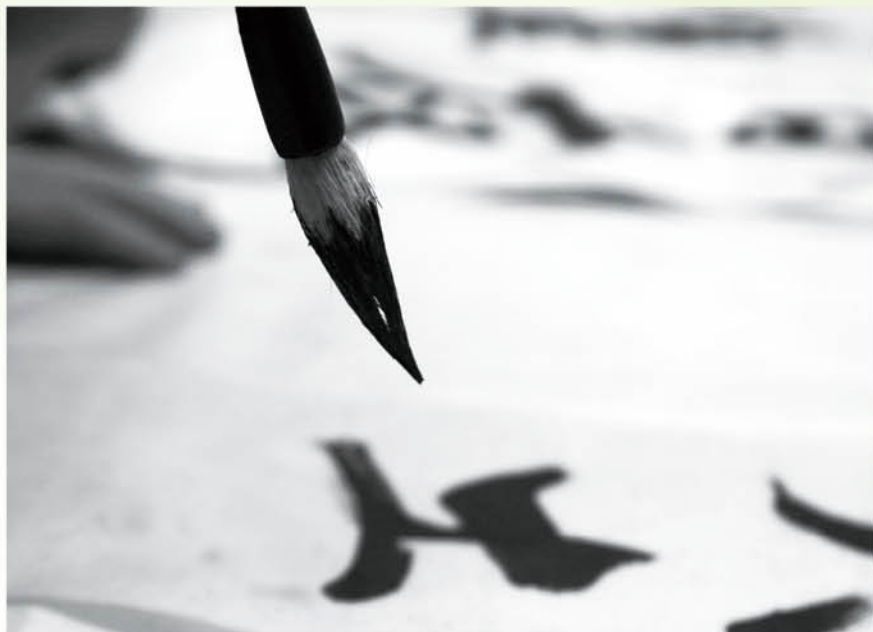
작품 속의 어린소녀들은 대체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한참 수다스러울 나이인데도 유독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린 소녀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어린소녀를 보면 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일을 멈추고,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깊은 생각과 감성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



자기 단속

하수일(河受一)
조선 중기의 문신

須觸處斂束
若在嚴師畏友之側

수축처엄속
약재엄사의우지측

모름지기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단속하여,
마치 엄한 스승과 존경하는 벗의 곁에 있는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

- 이현일(李玄逸, 1627~1704), 『갈암집(葛庵集)』권17「답원손(答垣孫)」

위 구절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갈암(葛庵) 이현일이 산재(山齋)에서 공부하는 손자 지환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이다. 지환은 갈암의 셋째 아들인 밀암(密庵) 이재(李載)의 장남이다.

갈암이 한적한 산재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는 손자에게 먼저 당부한 것은 엄한 스승과 존경하는 벗을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라는 말이다. 이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산재에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손자의 마음을 다잡아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여 나태함과 사욕이 자라게 되면 학문을 지속해 나가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옛날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자(曾子)는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해 줌에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가[爲人謀而不忠乎]’ ‘붕우와 더불어 사귀에 성실하지 않았는가[與朋友交而不信乎]’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傳不習乎]’라는 세 가지로 매일 자신을 성찰하여 결국 성인의 온전한 학문을 수수(授受)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갈암 역시 자신의 손자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학문을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일 것이다.

이 당부에 이어 “한적한 곳에 홀로 있다고 해서 제멋대로 편히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자세로 자신을 지키고 깊이 사색하여 이치를 궁구해야 할 것이니, 학문의 큰 요체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노력하고 노력하거라.[不以幽閑處獨 自私自便 莊敬以持身 潛思以窮理 則學問大要 不出是二者 勉之勉之]”라는 면려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우리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고 기행과 일탈을 일삼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한다. 특히나 요사이 사회각계의 원로와 유명인들이 자신의 본분은 망각하고 추악한 사욕을 채우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증자가 세 가지로 매일 자신을 성찰하였듯이,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反求諸身]’을 유가^{儒家}에서는 학문을 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자신을 성찰하여 과실이 있으면 고치고 과실이 없으면 더욱 힘써서 이렇게 조금씩 실천해간다면 자신을 단속하는 공부가 점차 엄격해져 마음이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단속이 선행된다면 타인의 시선이 있건 없건 자신이 부귀하든 빈천하든 한결같은 자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권헌준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괜히 설레고
괜히 눈물이 흔들리는 날이 있지요.

선명함이 울긋 솟아있을
들판위의 봄!

초연 해지자
초연 해지자

그곳으로 가고픈 날
화사함이 반겨줄지는 모르지만
걸음을 옮깁니다.

세월이 가고 오는것에 대해
무더질때도 된듯한 시간들이 지났건만

나도
봄 꽃이 되고픈 마음으로..

떠 올리지 않으리라 했는데
흔들리는 가슴 틈사이에 자꾸만
올라오는 그리움

오늘은
그런 그런 날 입니다.

그런 날 바로 오늘
내 가슴이 견뎌내기 힘든 날.



반려견의 산책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는 반려견의 경우, 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위해 반드시 산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의 완화,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반려견의 산책!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 올바른 산책일까요?

우선, 산책은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도한 흥분상태에서의 산책은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고, 산책시에 불안함, 예민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의 안전한 산책을 위한 ‘리드줄’을 보호자님께서 꺼내들었을 때, 반려견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한다면 산책 나가시는 것을 잠시 미루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리드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보호자님께서 외출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스스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리드줄’을 손에 쥐어서 다른 장소에 옮겨놓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면 ‘리드줄’을 보는 것만으로 흥분하게 되는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리드줄’을 손에 쥐고, 반려견의 몸에 착용하는 것이 밖에 나가는 것이라는 공식을 깨트려 주셔야 차분한 산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산책전 필요한 연습입니다.

반려견이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약간의 간식을 통해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게 하여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산책연습은 현관문 앞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 나가는 반려견이라면 ‘리드줄’을 강하게 잡고

보호자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밖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호자님 옆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이 부분도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현관문을 열어줘도 집 밖으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반려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평소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하여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습이 완료된다면 그때부터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발맞춰 산책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산책은 차분한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상황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뛰어나가는 반려견, 산책만 나가면 보호자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반려견, 산책 나가서 대소변을 전혀 보지 않는 반려견, 산책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반려견의 경우 정상적인, 건강한 산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집 밖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책'이라는 것에 대한 보호자님의 인식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께서는 '산책'이라고 하면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두

고, 아니면 '몇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집 밖을 나오게 되는데, 이는 강아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은 목적지를 정해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집 안에만 있는 반려견에게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집앞 화단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 들어오는것 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주는 '산책'이 가능합니다.

'산책'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보는 행동을 통해 반려견의 사회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오랜시간 산책은 반려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산책시간과 산책거리를 증가시킨다면 충분히 훌륭한 산책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에게 있어서 '산책'이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출구'느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짧은시간이라도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산책'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 마음속 연꽃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청정한 연꽃 한 송이가 있는데, 무량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타고난 지혜와 능력인 양지·양능을 계발시키세요. 그러면 그 복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 총명과 지혜

총명이 곧 지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혜 속에는 총명이 포함됩니다. 총명은 단지 이해와 득실을 따지는 능력인데, 탐욕이나 속임수도 또한 총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 이해타산과 버리기

총명한 사람은 얻고 잃음에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 복과 지혜는 함께 닦아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며, 번뇌를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 날마다 선행을

마음의 밭에 선의 씨앗을 많이 심으세요. 선의 씨앗이 하나 많아지면 잡초 하나를 줄일 수 있지요. 땅이 늘면 잡초는 무성해 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행도 날마다, 수시로, 베풀어야 한답니다. 손을 들거나 걸을 때도 항상 좋은 생각을 품고 다니세요.

♡ 본분을 다하는 마음가짐

좋은 일 하는 것은 결코 이름이나 공덕을 쌓고자 함이 아닙니다. '본분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행이죠. 그야말로 정성스럽고 사심 없는 선행입니다. ♪

- 『아침명상록』

마음의 저울

석준호
정심사 교도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 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고,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마음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과해져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과해져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과해져 자만을 가리키는지
여유로움이 과해져 게으름을 가리키는지
자기 위안이 과해져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과해져 우울을 가리키는지
주관이 과해져 독선을 가리키는지
마음이 조금 과해지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땐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도 식이조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물결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음에 남이 있고, 내 마음이 있기에
남의 마음을 아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서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는 있다.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일주일 전에 강의를 다녀왔다. 산 가장자리를 따라 거닐며 진행하기로 했던 수업은 뜨거운 햇살 덕에 자연스럽게 숲 속에서 이뤄졌다. 여름이 한창인지라 숲 속은 온통 잎들로 가려져 새의 모습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소리와 관련한 새의 해부학적 그리고 소리의 구조적 특징 등 새소리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윽고 박새, 검은등뺨꾸기, 산솔새, 큰유리새 소리가 차례로 들려 왔고 소리의 주인들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그 새가 지닌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러다 멀리서 파랑새 소리가 들려왔고 ‘저게 파랑새 소리입니다’라고 말한 뒤 수업의 호흡을 잠시 멈추었다. 예상대로 곧 “정말 파랑새가 있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파랑새와 관련하여 그림자처럼 따르는 질문이다. 질문의 답은 ‘파랑새는 있습니다만 생각하시는 그 파랑새는 아니에요’이다.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메테르링크가 쓴 그 유명한 ‘파랑새’에 등장하는 파랑새는 알다시피 일종의 상징으로 ‘행복’을 형상화한 것이지 실존하는 조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실제 마운틴 블루버드 *Mountain Bluebird*라는 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파란색을 띠고 있어 모양도 이름도 진짜 파랑새이기는 하지만 이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먼저 이들 무리는 유럽이 아니라 북미대륙,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반면 작가 메테르링크가 살던 지역은 유럽, 벨기에인 관계로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극중 파랑새는 자연계 내의 새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다는 작가의 문학적 상상의 산물인 듯하다. 블루버드 *The Blue Bird*라는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푸른색을 지닌 새’가 더 가까운 표기인 듯하다.

처음 이 극을 국내에 소개할 당시 ‘청조’나 ‘청새’ 혹은 ‘파랑새’라는 새 이름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터라 극의 제목을 ‘파랑새’ 번역하였고 하필 실제 국내의 자연계 내에도 ‘파랑새’라는 종이 서식하고 있어서 소설 속과 실존하는 두 파랑새가 동일한 종인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가 발생한 듯하다.

실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랑새의 영명[※]은 블루버드가 아니라 브로드빌드롤러 *broad-billed roller*다. 색 또한 파란색 하고는 무관하다. 파랑새는 새들이 가지는 ‘구조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각도나 빛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색은 녹색이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머리는 검은색, 먹은 코발트 청색이다. 부리는 새빨갳고 다리도 짙고 선명한 주홍색이다. 날개는 검은색과 코발트 청색이 혼재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파랑새라는 이름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색으로만 본다면 큰유리새, 쇠유리새 혹은 청호반새가 파랑새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 옳았을 수도 있다.

나는 여름 하늘을 나는 파랑새를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진다. 파랑새의 날개 아래에는 하늘색의 커다란 반점이 있다. 특히 이 반점을 두고 모양이 동전과 같다고 하여 달러버드^{dallorbird}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2년 전 국제협력연구사업 수행차 캄보디아 밀림지역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동락하던 원주민이 어느 날 나타난 파랑새를 보고 ‘딸라, 투딸라^{two dallor}’하고 좋아라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마치 우리의 돈벌레처럼 파랑새를 보면 돈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양 날개에 하나씩, 총 두 개의 반점 그러니 그의 말대로 2달러인 셈이다. 사실 그 날은 그에게 임금을 주기로 맘먹은 날이었다. 그날부터 그곳의 파랑새 이미지가 나에게도 각인되어 돈은 생기지는 않았으나 파랑새를 보면 그들처럼 왠지 설레게 된다.

파랑새는 호주의 북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동부와 북동부, 한반도, 일본 등에 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여름에 찾아와 번식을 하는 여름철새로 숲 가장자리, 계곡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이 서식하는 곳에서는 전기줄이나 고사목과 같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짹짹 혹은 케케케케... 하고 내는 단음절의 소리로써 서식이 쉽게 확인된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혹은 관심이 없으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돌아오다 조용히 날고 있는 파랑새를 보았다. ‘이제 싸움이 끝났구나’라고 말했더니 모두가 무슨 말이나고 물었다. “저 놈들 올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등지 때문에 까치랑 싸웠는데 그걸 몰랐어?”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놀란 것은 그다음의 대답이었다. 여태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몰랐고 저런 새는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사무실 앞 운동장에선 올 봄부터 지금까지 매일 같이 까치와 파랑새의 싸움이 요란했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났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이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바로 코앞에서 시끄럽게 살고 있는 파랑새도 못 보면서 어떻게 찌루찌루의 파랑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까 싶었다. 정말 파랑새는 주변에 흔히 살고 있다. 맘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시골 뿐 만 아니라 서울 시내 궁궐에도 살고 심지어 서울 도심 동대문 앞에도 산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파랑새는 살고 있다. ♪



효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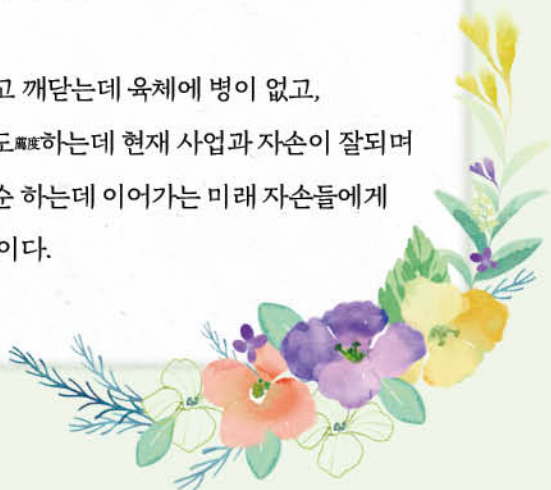
법수연
화음사 전수



효친

(종조법설집 p.119)

- ①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孝順}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心德}의 대원^{大元}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 ②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할지며
어머니를 땅과 같이 공경하여라
너희자손 모범되어 창성^{昌成}해지고
영원하게 가보로서 전해 가리라.
- ③ 형상없는 이불^{理佛}을 믿고 깨닫는데 육체에 병이 없고,
부모조상의 영식을 천도^{天度}하는데 현재 사업과 자손이 잘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 하는데 이어가는 미래 자손들에게
효순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손을 위한 불공이라면 하반기 49일불공은 부모조상들의 은혜 갚기 위한 불공기간입니다.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사는 가족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각자의 눈높이와 관점에 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것 또한 개인마다의 차이가 큼니다.

만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부모 혹은 조부모를 한테 묶어 하지 말고, 한 분 한 분 따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당체법문은 그 분의 삶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49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한 분마다 3주씩을 할당하고 마지막 남은 한 주에는 두 분을 같이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분씩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오는 법문은 오로지 그 분의 법문이 됩니다. 또한 불공하는 자신의 마음 역시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진이나 회사역시 보다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느 보살님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결혼을 하였기에 어른들의 내력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먼저 시아버지불공을 하는 3주간 동안 각자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무척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되어서 힘이 무척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문인 줄을 모르고, 함께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다가 '아차! 이런 것이 바로 시아버지 모습을 알게 해주는 당체법문이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즉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이어서 시어머니불공을 하는 3주간은 본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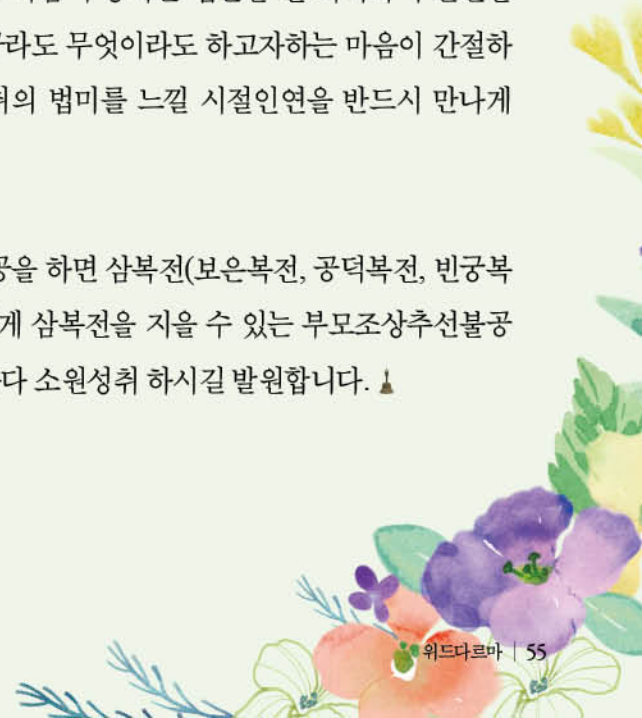
더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싶어 확인을 해 볼 겸 손위 시누이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시누이가 말하길, 아버지는 본래 성격이 간간하고 완벽주의자여서 살아생전 모든 일에 만족할 줄을 몰라 했답니다. 반면 어머니는 남편과 달리 화통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향이었습니다. 불공 이야기를 들려주니 시누이는 매우 신통하다며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추천불공을 해보면 당체법문으로 살아생전의 모습 중 특징적인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므로 조상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은 업에 대한 참회를 대신하게 되면 조상의 업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추천불공하면서 법문으로 인해 너무 힘이 든다면 기간을 짧게 정하여 여러 번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공해 갈수록 법문의 강도가 차차 약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좋은 법문이 보이게 된다면, 조상의 나쁜 업이 추천불공의 공덕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겠지요.

하반기 추천불공은 방생법회로 회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원의 교도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대부분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매년 하반기 불공마다 돌아가신 시부모를 위해 추천불공을 해온 어느 보살님의 체험담을 공유 할까 합니다. 입교 20년이 지났으니 적어도 20회 이상의 추천불공을 해온 보살님은 매 해마다 방생법회에 보시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 갈증을 느꼈답니다. 어느 해에는 49일 불공 내내 여행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랍니다. 회향일이 가까워져서야

‘이런 마음이 바로 시부모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짐작이 가서 시부모님을 반드시 관광버스에 태워드리겠다고 부처님 앞에 발원을 했습니다. 회향 일을 목전에 두고, 남편과의 상의 끝에 부모님을 염두에 둔 차량보시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큰 소나무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이었고, 주위에는 강강술래를 하듯 친인척들이 쭉 둘러서서 있는데 그 중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평소 하던 걸 보면 도저히 용서 할 수 없으나, 어쩔 일로 우리 모두를 태워 여행시켜준다고 하니 여태껏 좋지 않았던 것 모두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시아버지매단 줄을 풀어 주더랍니다. 보살님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자신에게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릴 기회를 주어서 무척 감사하다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추천불공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구경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차량보시의 마음이 동하는 법문을 잘 파악하여 실천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누구라도 무엇이랴도 하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용맹정진한다면, 성취의 법미를 느낄 시절인연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부모조상위해 추천불공을 하면 삼복전(보은복전, 공덕복전, 빈궁복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삼복전을 지을 수 있는 부모조상추천불공을 실천하여 가정 가정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발원합니다. ♫





차*란?

차나무의 순이나 잎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만을 차라고 하며 그밖의 것은 대용차(커피 등)라고 불립니다

차의 유래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조상들이 차를 즐겨 마셨던 사례중 조선후기 다산 정약용(천주교), 추사 김정희(유교), 초의 장의순(불교)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고 격을 두지 않고 종교의 대립도 없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차란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게 하고 목만 축여주는 것이 아니라 옛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차*를 왜 마셔야 하는가?

차잎으로 만든 차에는 몸에 좋은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아 자주 마셔주면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연히 차는 우리에게 건강을 안겨줍니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의 중금속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이뇨작용에 좋은 차는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해주고 건조해서 염증이 나기 쉬운 목, 입, 코 등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차는 질병 예방에 아주 중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 발표(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병의 종류 중 90%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의 일부가 활성산소로 바뀌어 우리 몸을 녹슬게 하여 질병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뛰어난 성분이 찻잎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입니다. 차는 찻잎으로 만듭니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활성 산소의 제거로 이어져 암 예방 · 진행 억제, 성인병 예방 그리고 노화억제등 질병 예방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타임^{TIME}지가 선정한 몸에 좋은 슈퍼푸드 10가지 중 5번째로 녹차를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 차는 어떻게 마시는게 좋은가?

간혹 녹차를 마시면 몸을 차게 한다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뭐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속담처럼 차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식혀 오래 두었다 마시면 이런 증세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실 때는 조금씩, 빈속에는 속을 채운 뒤, 찬 것 보다는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차를 어찌다 마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매일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식사 후에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와는 다르게 차를 마실 때는 바른 마음 가짐과 몸가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예를 갖추면 차를 함께 하는 다른 이가 기분도 좋을 것이며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절제된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나를 다스리게 하는 자리도 될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차를 더 흥미하고 바른 자세를 위해 먼저 찻잔을 잡을 오른손이 나갈 때 왼손은 살짝 따라 나가 찻잔아래에 받쳐주어 입으로 가져 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먼저 눈으로 색을 보며 코로 향을 맡고 혀로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이 차의 예이며 한잔을 세번 나누어 마시는 것 또한 예인 것입니다.

차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며 직접 깨닫는 것만이 차를 진정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차를 늘 가까이 두고서 생활 하다보면 일상에서의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



제비원 돌부처

보현
실보사 전수

조선 14대 선조 25년(1592년) 왜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동래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한양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조선 군대는 여기저기서 패하고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무리의 왜병들이 소백산 죽령을 넘어가기 위해 안동 제비원(원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관리들의 숙소를 겸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사찰이 위치한 인근지역을 통칭한다)을 기세등등하게 요란한 말발굽소리와 함께 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리고 있던 말들이 걸음을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왜장은 칼등으로 말을 쳐

재촉하여 봤지만 미동만 있을 뿐 움직이지를 앉았습니다. 수십 명의 왜병들 또한 채찍을 휘둘러보고 내려서 말고삐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장은 연유를 알아내고 해결 후 한시바삐 진군하고 싶었지만, 이유를 알 길이 없으니 얼굴은 붉어지고 부하들을 향해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왜장이 부하들을 시켜 제비원 근처를 사방 팔방으로 조사를 시켰더니 오른쪽 언덕 위 푸른 숲 사이로 위치한 작은 암자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바람에 흔들리는 추녀 끝 풍경소리와 스님의 염불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왜병은 흠발로 법당에 뛰어들어 염불하던 스님을 오랏줄로 묶어 법당 섬돌 아래 꿇어 앉혔습니다. 왜장은 스님을 노려보며 말들의 발을 묶은 마술을 어서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연유를 들은 스님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더 화가 난 왜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어 '무쇠도 물 배듯 하는 칼'이라며 스님의 목을 향해 겨누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마술이라니 그런 헛된 사술은 섬나라에나 있을까 우리 조선국에는 없소. 특히 불제자는 그런 사술을 모르오. 지금 그대의 말들이 요지부동한 것은 필시 부처님의 뜻일 것이오.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께서 그대들의 이유 없는 살생을 막기 위해 그 뜻을 نن지시 시현하신 듯 하니 어서 병마를 거두어 돌아가시오.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을 외면하는 까닭으로 병마가 성치 못 할 것이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의 말을 들은 왜장은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나무관세음보살을 찾을 것을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칼로 생업 하는 자, 그 칼로 자기 목을 칠 것이오. 내 부처님 뜻에 따라 살생을 원치 않으므로 그대 목숨 상할 것이 걱정되어 이르노니 어서 마을을 떠나시오.”

스님의 조언에도 왜장은 부처를 찾아 벤 후 스님을 베어주겠노라 맹수처럼 이빨을 내놓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때 산마루에서 돌부처를 찾았다는 부하들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왜장은 살기등등하게 스님을 끌고 돌부처 앞으로 갔습니다. 돌부처 앞에 선 왜장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기합소리와 함께 돌부처의 목이 동강나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검술에 통쾌하게 웃던 왜장은 갑자기 낮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붉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돌부처의 잘린 목에서 선혈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일면서 천둥 번개가 치니 사람은 울부짖고 말은 날뛰었습니다. 왜병들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땅바닥을 기었습니다. 당황한 왜장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으며 왜병들은 우왕좌왕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그 스님이 누구였으며, 왜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경북 안동 제비원에는 선혈 자국이 있는 목 잘린 돌부처가 풍운의 역사를 지닌 채 서 있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비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사랑을 중시하며,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고대사회는 정복 전쟁을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운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불교는 국가 수호의 이념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현재 호국 불교의 이념은 우리의 수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나의 안녕과 나아가 가족의 안녕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녕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호국 안민 법회를 준비하는 우리 충지인들의 마음에도 호국의 정신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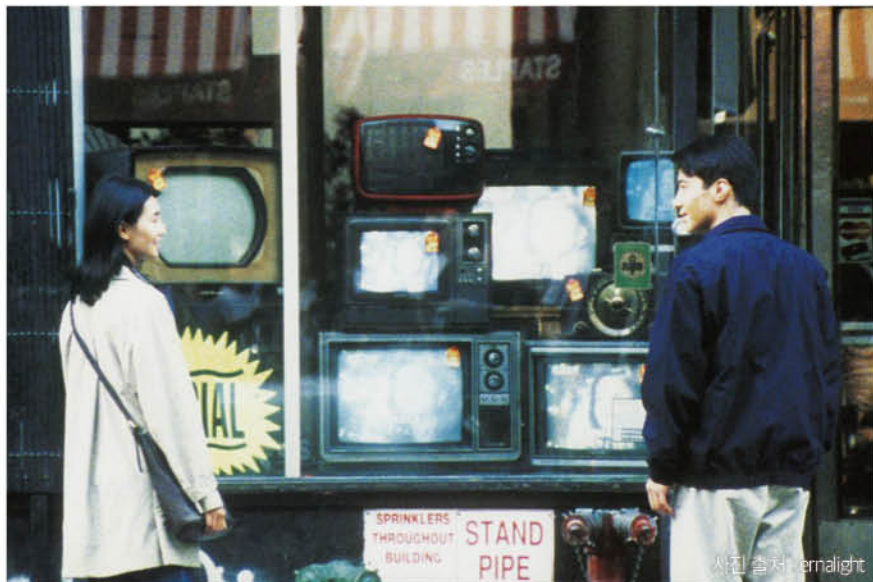


침밀밀 𪛗𪛗𪛗

- 운명적 사랑을 이야기
하고 싶은 영화

자인행

밀행사 전수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운명적 사랑은 믿는다. 만날 사람은 결국에는 운명처럼 만난다. 이 세상의 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운명처럼 생각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이 나의 운명,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적 사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현실은 나의 희망과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인생 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내 몸의 일부인 입안의 혀도 내 맘대로 못해서 가끔은 깨물어 피를 보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다.

영화 침밀밀은 세상에는 언제나처럼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지나가는 야속함이 가득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랑만큼은 운명적 사랑 그리고 운명적 만남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1986년 홍콩에서

순진한 시골 청년 소군(여명)과 조금은 당차고 악착같은 아가씨 이교(장만옥)는 각각의 꿈을 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온다. 소군은 창녀들의 포주 노릇을 하는 고모에게 얹혀 작은 골방에 지내면서 우연히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이교를 알게 된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홍콩생활에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소군에게는 고향에 두고 온 약혼녀가 있고 이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큰 집을 사려는 꿈이 있었다.

이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장사를 시작하지만 실패하고 빚만 지게 된다. 빚 때문에 마사지숍에서까지 일하게 된 이교. 둘은 텅 빈 이교의 통장 잔고를 은행 무인 인출기에서 확인하던 그날 횡단보도에 선 두 사람은 같이 건널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길로 갈 것인가 결국 “여소군 동지”라고 부르며 이교는 소군에게 서로의 존재를 일깨워 준다. 그리고 홀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소군 역시 잡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면서 그렇게 헤어지고 만다. 사랑은 결코 노래제목 침밀밀처럼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은 현실.

다시 1990년 홍콩에서

소군이 요리사가 되어 고향에 있는 약혼녀를 불러 결혼식을 올리는 자리에 이교는 다른 남자와 같이 축하해주러 온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꿈을 이룬 후에 만났지만, 둘은 예전의 시간처럼 서로의 감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고 현실적 여건 때문에 포기 했던 사랑을 선택한다. 소군은 아내에게, 이교는 현재 자신의 곁에 있는 남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 하고 둘만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만 각자의 뜻과는 상관 없이 움직이는 세상은 그들에게 헤어짐을 강요한다.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린 소군은 아내와도 헤어지고 홍콩을 떠나 뉴욕으로 간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 남자도 죽고 혼자 남은 이교는 운명 인지 아님 우연인지 뉴욕에 오게 되고 거리의 전자상가에서 흘러나오는 등려군의 노래 때문에 다시 만난다.

다시 1986년

홍콩역에 도착함을 알리는 방송 소리에 서로 뒷머리를 맞대고 잠들어 있던 소군과 이교는 허둥지둥 기차에서 내려 소군은 오른쪽으로 이교는 왼쪽으로 사라진다.

헤어짐도 만남도 모두가 삶의 여정

영화 침밀밀은 20여 년 전에 개봉한 영화다. 나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다. 극장에서 혹은 TV에서 아마도 여러 번 봤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봤을 때는 등려군의 노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음 보는 영화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똑같은 영화라도 그 영화를 보는 나이나 영화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 영화다.

그전에는 10여 년 동안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다 마침내 만나게 된다는 운명적 사랑을 이야기 하는 영화로 나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영화 침밀밀은 남자와 여자의 헤어짐과 만남 그것들을 합쳐 사랑이라 부르며 거기에 운명을 붙이고, 우연 등을 붙여서 아무리 키워도 우리들의 삶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삶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 인 것 같다. 영화 속 소군과 이교처럼 우리들도 항상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고를 반복하며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이방인이 되어 낯선 곳을 헤매고 한때는 정착인이 되어 이방인을 맞이하면서 산다. 언제나 떠남이 두렵고 항상 만남이 어색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운명이 아닐까... 영화를 본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나는 계속 등려군의 침밀밀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

딸은 참 좋다

강금순
단음사 교도

일찍 결혼 해 친구 같은 딸이 둘이나 있는 난 참으로 행복한 엄마다. 힘들었던 고3시절 잘 견뎌내고 대학교 2학년인 딸, 지금이 제일 예쁠 때 인만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조금씩 어른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유치원 때부터 뭐든 잘 했던 딸이라 딸이 들어가고 처음으로 모범생이란 걸 유치원에서 만들었을 정도였고, 좁은 영천이지만 똑똑하고 야무진 딸 덕분에 덩달아 유명세를 탄 엄마였다. 전국영어대회에서 금상을 타 서울로 시상식도 다녀오고,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 딸 이름

을 볼 때마다 똑똑한 그 딸이 바로 내 딸이란 행복함과 뿌듯함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극성스러워졌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딸이랑 야생화 관찰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나는 맞출 수 있는 꽃을 딸은 맞추지 못하자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코너에도 딸을 따라다니며 가르쳐주는 별난 엄마인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야생화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참가한 대회에 상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반칙까지 하고 있었다. 이름도 예쁜 들꽃상을 받긴 했지만 그 날 이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엄마노릇 한다는 게 겁이 났다.

어릴 때부터 주말이면 두 딸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보고 싶은 책은 대출해서 읽었다.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고, 평생 옆에 두고 지낼 친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지런히 데리고 다녔지만 여전히 읽으면 좋은걸 알지만 책 읽기가 즐겁지는 않은 가보다. 반면에 나는 그때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았다. 당시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육아관련 책들도 읽기 시작했고, 애들 책도 함께 읽으면서 딸이랑 이야기 많이 하는 엄마가 되어갔다. 그러면서 조금 멀리서 지켜보니 내가 사는 축소판인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딸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친구들과 토닥이다가 화해할 줄 알고, 시험기간이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에게는 그저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 그런 모습은 자연스레 동생도 배우게 되어 두 딸은 지금도 제일 좋은 친구로 지낸다. 난 내 딸들

이 그래서 다른 집 자매들도 다 사이가 좋은 줄 알고 있었으나 살벌한 자매들이 더 많다고 한다.

대도시는 없지만 여긴 시골이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할 때 배치고사를 치는데, 2명이 만점을 맞아 입학식 때 공동 선서를 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중학생이 되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어릴 때부터 전력질주한 공부가 지겨웠던지 공부는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렸고, 친구들과 노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첫 중간고사 수학시험 치고 와서 평평 울던 딸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기대와 달랐던 점수에 실망한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 받았고 그것보다 엄마에게 많이 미안했다는 딸.. 그렇게 공부 잘하고 까칠하던 딸은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노는 성격 좋은 딸로 변해갔다.

놀면서도 공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 태권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가에 허락했다. 스트레스 풀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해서였는데, 딸 믿어주는 쿨한 엄마로 보였는지 두고두고 고맙다고 한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후회는 대학교 들어갈 때 잠시 느꼈을 테니 그걸로 됐다.

딸을 키우며 내 엄마에게 미안한 날이 많다. 난 딸만큼 공부로 엄마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주지 못했고, 친구 같은 딸도 돼주지 못했다. 어버이날 따뜻한 편지 한통, 선물하나 해 드린 적 없었는데 딸들은 낳아

주고 키워줘 고맙다는 말을 한다. 엄마에겐 내가 친구 같은 딸, 아니면 의지하는 딸이었을텐데. 그런 엄마에게 지금 내 딸보다 조금 더 보탬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딸들에게 말은 안했지만 나 혼자 다짐하는 생각이 있다. 딸들에게 받을 효도 키우면서 다 받았다고. 좋은 엄마, 현명한 엄마가 되는 법도 배워 엄마가 됐으면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겠지만,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 딸들 키우며 딸들한테 배우며 산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나도 조금씩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간다.

딸은 실내건축 전공이다. 손과 눈이 아물고 진심을 다해 고민하는 딸임을 알기에 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상과 현실이 달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자신을 더 못 믿게 할 날도 있겠지만 너라면 할 수 있다. 7월 인도에 어린이놀이시설 및 환경개선 프로젝트가 있어 신청했다고 한다. 합격해서 딸이 할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딸 이름 걸고 멋진 건물 하나 지어 엄마한테 선물해 줄 날을 기다린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허전한 날은 딸이 그리운 날이다. 딸도 내 마음과 같은 날이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었다고 한다. 친구 같고 애인 같은 이런 딸이 어떻게 내게 왔을까 생각해본다. 엄마인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딸. 철들지 않고 친구처럼 이리 지내고 싶어 철들 일 없는 엄마다. ♣

리스트와 쇼팽의 아름다운 우정



▲ 리스트 (사진출처 imtheone)



▲ 쇼팽 (사진출처 벅스)

리스트와 쇼팽은 특별한 사연이 많다.

쇼팽이 리스트를 처음 만났을 때, 리스트는 이미 전 유럽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로 성공한 음악가였고 쇼팽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음악가의 신세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쇼팽의 안타까운 상황에 리스트는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리스트는 쇼팽의 음악적 멘토이고, 쇼팽의 작품을 인정해 준 유일한 친구였다.

두 거장들은 파리에서 처음 만나자 바로 한눈에 서로 상대방의 음악적 재능을 흠모하여 그날부터 둘은 거처를 한방에 정하여 같이 생활을 했다.

당시 보편적이었던 리스트 스타일을 선호하던 피아노 음악과는 달리 쇼팽의 음악은 정반대 성향을 띄고 있어서 쇼팽은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다.

그저 선술집이나 식당에서 감상하는 정도의 아마추어 음악이라고 치부하는 정도였다. 이런 안타까운 쇼팽의 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리스트는 적극적으로 음악회를 통해 쇼팽을 알렸다.

어느 날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던 밤이었다.

리스트는 실내의 모든 불을 끈 채 캄캄한 가운데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관객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한 번 없는 리스트의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에 감탄하며 연주를 듣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연주회장엔 불이 켜졌고, 관객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지금까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던 사람은 리스트가 아니라 쇼팽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쇼팽은 천재 음악가로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쇼팽은 음악가로서 승승장구 할 수 있었고 리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명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그리고 쇼팽은 리스트와 함께 음악공연을 함께 하며 주옥과 같은 피아노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사랑하는 피아노 작곡자로 남게 됐다. ♪



원하는 것만큼
고통도 따른다범일
벽룡사 주교

어떤 사람이 등에 멋진 사자 문신을 새기고 싶어 수소문 하여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을 찾았다.

문신장이가 바늘을 가지고 등에 사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킁킁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다.

“이보쇼. 날 죽일 셈이요? 지금 대체 사자의 어디를 그리고 있소.”

“아. 사자의 꼬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사자 꼬리를 떼고 그려 주시오”

그가 고통스럽게 말하였다.

문신장이는 사자의 꼬리를 떼어내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또다시 킁킁거렸다.

“도저히 아파서 참을 수가 없구만. 지금은 어디를 그리고 있소”



“사자의 갈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사자 갈퀴 없이 그려 주시오”

문신장이는 갈퀴 없는 사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킁킁거리다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번엔 어디요”

“사자의 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말로 소리쳤다.

“배요. 나는 배 있는 사자를 원치 않소.”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문신장이가 별떡 일어나 바늘을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꼬리도 없고, 갈퀴도 없고, 배도 없는 사자라니. 그런 걸 대체 어떻게 그린단 말이요. 나는 못 그리니 나가시오.”

등에 멋진 사자 문신을 원한다면 바늘의 고통을 참아내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의 고통을

참아내야 얻을 수 있다. 사자 문신처럼. ♣



공명지조

共 命 之 鳥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共 한가지 - 공

命 목숨 - 명

之 갈 - 지

鳥 새 - 조

역수고금(歷數古今: 고금을 헤아려 봄)에 동아
시아 역경사(譯經史)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구마
리집(鳩摩羅什 344~413)이라고 할 수 있다.

천산남로 최대의 오아시스 쿠차국¹⁾의 승려
로 나라의 흥망이 빈번했던 당시에 조국의 몰
락으로 그는 동아시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방대한 불경을 한문으
로 번역하는데, 그가 남긴 번역어는 불멸의 생
명력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
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지옥(地獄, 극락(極樂) 등의 탁월한 언어의 조탁(造琢)을
들 수 있다. 그의 번역은 의역을 기본으로 동
아시아인이 마음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이해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공명지조(共命之鳥) 또한 그로인해 한역 불경에
등장하게 된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새로, 산스

크리트본에는 없지만 한역 과정에서 구마라집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전
설의 새이다.

공명조(共命鳥)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로 평소에는 사이가 좋다가 먹
을 것이 생기면 싸운다. 다른 머리가 없으면 혼자 먹을 텐데 하는 마음에
독이 든 음식을 상대가 먹게 하여 죽이려다 몸이 하나인 까닭에 같이 죽
게 되는 운명공동체의 새이다.

이는 인간의 분별심과 상대적인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표상물로 생각
할 수 있다. 좋고 싫음,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등 모든 대립적 관계에
대한 분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대립을 이어주는 것
이 바로 하나의 몸이다. 불이(不二)의 세계가 몸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구마라집이 '즉(卽)'이라는 한자어를 통해 대립과 상대의 세계
를 불이(不二)의 세계로 이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번뇌즉보리, 생사즉열반
의 세계가 가능해 진다.

공명조의 몸은 이와 같이 '즉(卽)'과 닮아 있다. 그래서 공명조 또한 극락
에서는 다투는 일 없이 '즉(卽)'의 자리 곧 한 몸의 공명(共命)을 통해 깨달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

1) 고대 불교 왕국 구자국(龜茲國)으로 비단길에 위치하며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 가장자리 무자
트 강의 남쪽에 위치.

다반사

茶飯事

茶 차-다 飯 밥-반 事 일-사

- ① 차를 마시고 밥을 먹듯 일상적^{日常的}으로 하는 일.
- ② 예사^{例事}로운 일. 예삿일. 흔한 일.
- ③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 항다반사^{恒茶飯事}

다반^{茶飯}이란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들을 일컫는 말이다. 본래는 항다반사^{恒茶飯事}이지만 줄여서 다반사라고 한다.

항다반^{恒茶飯}과 사^事가 결합한 ‘항다반사’가 본말이다. 항다반은 ‘항상 있는 차와 밥’이라는 뜻이다. 차와 밥은 늘 마시고 먹는 것이다. 이것들이 있다고 이상하거나 신통하지 않다. 항다반은 항상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됐다. 항다반사 혹은 다반사는 흔히 있는 예사로운 일^事 ‘예삿일’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을 다반사로 한다’고 하며, 또 지각과 결근을 자주 할 때 ‘지각, 결근이 다반사야’라고 한다.

이 말은 선종^{如來數}에서 나온 말인데, 참선 수행을 하는 데 유별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즉 차 마시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른바 행주좌와^{如來數}가 그대로 선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면서 비롯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석존께서 설한 만고의 진리인 불법도 그 어떤 특별한 데, 예컨대 하늘이니 극락이니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있다는 매우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흔히 불법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렇다. 진리는 평범한데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법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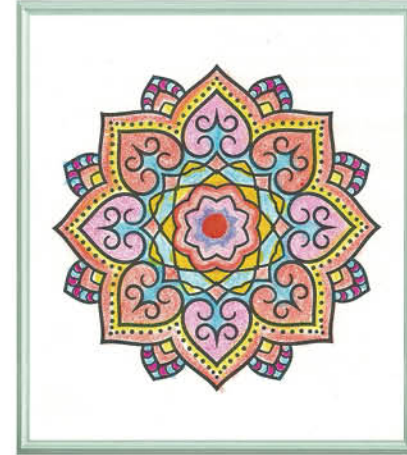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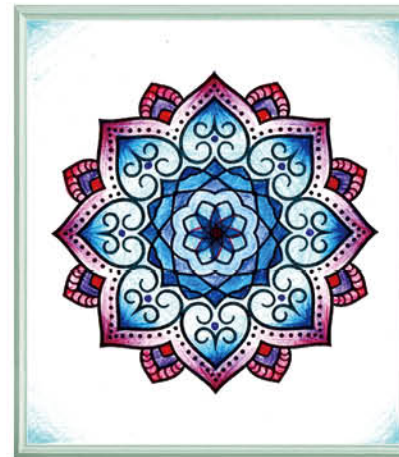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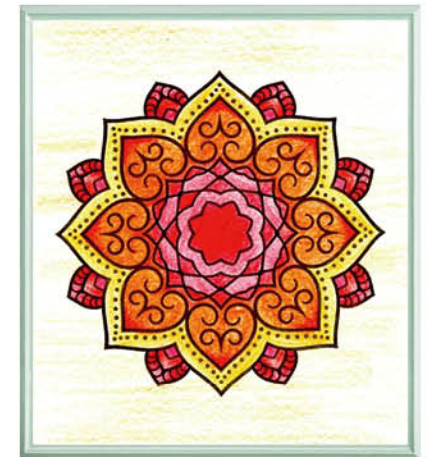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 울산 이미숙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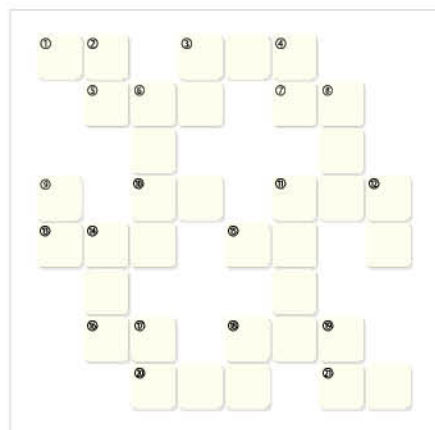
▲ 포항 김지미 님



▲ 부산 김경화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 ㉡ 부서져 남아 있는 물체
- ㉢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
- ㉣ 일을 감당하여 차림함
- ㉤ 사람의 생김새와 옷차림
- ㉥ 불꽃을 집는 데 쓰는 집게
- ㉦ 쌀의 달림
- ㉧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
- ㉨ 화를 자동차
- ㉩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 ㉪ 달콤한 냄새
- ㉫ 한창 수확되거나 쏟아져 나올
- ㉬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딪침

区 县 局 委 办 厅 司 处 科 室 股 队 站 所 村 居 民 委 员 会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승자
김양숙	김종철	류병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발행일	총기 47(2018)년 6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하는 요즘입니다.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나뭇잎처럼 밝고 맑아지시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여름 더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건강한 여름 맞이하세요.

6월호



부자로 살고 싶은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존경받고 싶은가?
선지식을 존경하라
오래 살고 싶은가?
다른 생명을 존중하라

- 환당 대중사 -